

| 의제별위원회_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소개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목표로 논의에 박차

설문수 전문위원

발족개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다. 주요 지표 중의 하나인 근로자 1만 명 당 사고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은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2~3배에 달한다. 현대 사회는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산업구조는 점점 더 대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노동현장의 위험도 커지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요인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구조가 생겨남에 따라 노동자와 사업주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일과 가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증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이 발생하는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노사정대표회의 산하의 의제별위원회 중의 하나로서 지난 7월 17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위원구성

발족 당시 위원회는 위원장(박두용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포함하여, 노동계, 경영계 및 정부 위원 각 2명, 노동계 추천 공익위원 2명,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 2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추천 공익위원 1명 등 총 12명의 국내 최고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지난 11월 22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노동계 위원 1명은 공석으로 남아 있다. 위원회 운영기간은 발족일로부터 1년이며, 필요 시 합의하여 연장하기로 하였다.

논의의제

논의의제는 단기 의제로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와 산업안전보건법·제도 실효성 확보를 선정하였으며, 중장기 의제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개선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단

기외에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의 우선 세부 논의의제로는 장시간 노동과 안전보건, 서비스업 안전보건 대책을, '산업안전보건법·제도 실효성 확보'의 우선 세부 논의의제로는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방안,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을 선정하였다. 중장기 논의의제인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 개선'의 세부 논의의제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 행정체계 현황,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 개편 필요성 검토, 외국의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 실태 검토,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 개편방향을 선정하였으며, 여건이 허락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논의의제 장시간 노동과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실태 및 문제점, 노동시간 규제와 관련한 제도,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등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투잡(two-job), 특수고용형태종사 근로자 등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보호 방안,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일일 또는 주간 단위의 최대허용 근로시간 및 과로사방지법 등이다. 이들 중에서 노동시간과 관련된 사항은 논의결과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과 탄력근로 등 노동시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칭)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 위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의제가 확정될 때까지 논의를 잠정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과로사방지법 등 과로사 방지방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장기 의제인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개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구분	위원명단
위원장(1)	박두용 이사장(안전보건공단)
노동계(1)	김광일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한국노총)
경영계(2)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한국경총), 양옥석 인력정책부장(중소기업중앙회)
정부(2)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기획재정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고용노동부)
공익(5)	유성규 노무사(노무법인 참터), 전형배 교수(강원대), 정진우 교수(서울과기대), 김수근 교수(성균관대), 김기선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간사위원(1)	설문수 전문위원



보건 감독행정 체계,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의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및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적의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국내외 감독행정의 작동체계를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설명을 듣고 필요 시 주요 외국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국가의 감독행정체계를 파악한 이후 감독행정체계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계획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발족한 지 약 반년이 지났다. 논의할 의제는 산적해 있고 논의시간은 촉박하다.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각 논의의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위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논의에 임하고 있다. 머지않아 의미 있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